

믿음으로 사는 후대

신명기 8:1-6, 히브리서 12:1-13

최정웅 목사님

이번에 RCA에 다녀왔다. 거기에서 최봉식 장로님, 최신주 집사님, 김준일 집사님, 최숙영 집사님, 정예준 램네티를 만났다. 여러분에게 인부를 전했다.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김중환 장로님, 황호제 권사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소식을 전했다.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더라. 김중환 장로님은 금년 말이 은퇴고, 황 권사님은 내년에 은퇴하신다고 하더라. 다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서 믿음생활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오늘 의 주제는 믿음으로 사는 후대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겠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들이 많다. 불신자는 세상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방법으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남아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인맥을 동원하고, 경쟁자를 눌러 물리쳐야만 살아남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한비자 이론 같은 것을 충동원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거부하고, 거짓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인본주의를 써야 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런데 불신자는 절대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반드시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8:44을 보면, 모든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죽이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원수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사단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오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살 수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법은 불신자와 다른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1:16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다.

찬송가 작가인 크로스비 여사가, 어느 날 5달러가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을 구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5달러가 꼭 필요합니다." 몇 분이 안 되어서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대화를 좀 나누다가 돌아가면서 봉투 하나를 전해주더라는 것이다. 그 봉투 속에 정확하게 5달러가 들어있더라 했다.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지은 찬송가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분의 고백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후대에게도 놀라운 비밀들을 전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후대가 되도록 해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1.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전달해야 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전할 수 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라고 하지 않는가. 베드로가 앓은뱅이를 일으킬 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전달한 것이다.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려면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전달하게 되기를 바란다. 히브리서 12장의 본문은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연결되어서 오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히브리서 12:1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대한 결론을 말씀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세 가지 믿음의 내용을 볼 수 있다.

(1)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근본적인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고, 후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모세는 믿음으로 율월 절 양의 피를 발라서 출애굽의 응답을 받았다. 구약의 성공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근본 믿음을 가진 자는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요한복음 3:16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다. 로마서 1:16에, 복

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다. 요한복음 1:12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삶에서 보여주고 전달해야 한다.

(2)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전달해야 하겠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행복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애독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장래의 유업으로 붙잡았다. 보이는 것에 소망을 담지 않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담았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행복의 믿음을 누리고, 후대에게 보여주고 전달해야 한다. 그래서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달하는 것이다. 이번에 비행기에서 <성경이 만든 부자들>이라는 책을 읽었다. 벤자민 프랭클린, 록펠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록펠러는 어머니가 아주 훌륭한 믿음을 전달해 주었다. 여섯 살 아이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야야, 내가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두 번째는, "너는 예배당에 가거든 반드시 제일 앞에 앉아라." 교회 교인이 800명이었는데, 관광객도 800명이 몰려왔다고 한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보고 싶어서 보러 온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록펠러는 항상 제일 앞에 앉았는데, 지정석이 아니었다. 40분 전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그제 자기 자리가 된 것이다. 세 번째로, "너는 무슨 일이든지, 교회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지 말고 순종하라." 록펠러는 98세를 살았는데 한 번도 교회에서, 목회자가 시키는 일에 이유를 달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절대로 목사님과 부딪치지 마라. 목사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98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킨 것이다. 39년 동안이나 세계 1위의 부자였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후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겠는가. 나는 여러 번 간증한다. 하나님은 '첫 아들, 첫 수입, 첫 새끼는 다 내 것'이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했다. 오늘도 어느 권사님이 취업을 하고서는,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다. 생활도 어려우신 분인데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 램네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 램네티의 일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 받는 근본 믿음을 전달해야 하겠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행복의 믿음도 반드시 전달해 주어야 하겠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구나 하고 깨닫게 해야 한다.

(3) 세 번째 전달해 주어야 할 것이 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히브리서 11:25-26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고 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다니엘처럼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그의 세 친구처럼 불의 세력을 멸할 수 있었다.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신앙이 꺾이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을 보고 히브리서 11:38에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믿음의 수준으로는 시대를 이길 수 없고 시대를 살릴 수 없다. 요한일서 5:4-5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후대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에서 능히 이기도록, 이 귀한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하겠다. 그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어야 되겠다. 조금만 시련

이 오면 불평, 불만,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이 또한 그 믿음을 록펠러처럼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2.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

(1) 히브리서 12:1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다. 이 증인들의 믿음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후대에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보여주어야 한다. 성경 속 일곱 램넛트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내가 가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어릴 때 돈 20원, 30원을 주고 빌려서 본 책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책들 중에 상당수가 위인전이었다. 한국문학, 세계문학을 섭렵했는데, 그 중에서 위인들의 전기들을 많이 읽었다. 그것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었다. 위대한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꿈을 꾸었다. 그래서 읽어야 한다. 나는 요즘 젊은 이들 가운데, TV를 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아이들이 눈이 나빠지고,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게 되니까 안 산다는 것이다. 그런 것을 보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염려도 되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구나 싶어서 안심도 된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조지 풀러나 무디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 환난 핍박 속에서 민족을 살리려고 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증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고 풍부한 것이 없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들던 말이 이 책 중에 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를 기억하는 후대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2)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 버려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발목을 잡는 원수가 바로 죄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롬8:2).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무슨 사탄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4:27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죄에 빠져서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원수를 막으라는 것이다. 여기에 속으면 영적 상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우리는 죄와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싸워야 한다. 오늘 본문 12장 4절에 보니까, '죄와 싸우는데, 내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했다. 12장 5절에는,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죄에 속는다'고 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그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속는 것이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임직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는가. 까마득히 잊고 있으니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권면할 때마다, 그것을 코팅해서 성경에 붙이고 읽어보라고 권한다. 하나님과의 약속, 교회와의 약속, 주의 종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나는 그래서 목사 임직을 할 때는 가능하면 빠지지 않는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령께서 너를 기름 부어 세울 때, 그때의 그 감동을 다시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나도 그 임직식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길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단호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 경건주의, 율법주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과 싸워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을 각인시키고 죄와 싸워야 한다. 특히 싸워야 하는 것이, 어그러진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강패와 자꾸 같이 지내면 강패가 된다. 도둑과 같이 지내면 도둑이 된다. 도박꾼과 같이 지내면 도박꾼이 된다. 어그러진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사도행전 20:30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속일 것'이라고 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된다." 불신앙의 말은 죄를 낳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2:13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했다. 우리가 불신앙에 속지 말고, 불순종을 무너뜨리고, 죄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 후대에게 그 믿음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3) 세 번째로, 히브리서 12:2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

수를 바라보라고 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을 전달해야 한다. 이것이 집중이다. 램넛트에게 약속을 전달하고 믿음을 전달할 답이 바로 집중이다. 어려움이 올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다.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도,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13의 말씀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대와 함께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 있다. "훈련은 실천처럼, 실천은 훈련처럼 해야 한다." 그만큼 훈련이 중요하다. 훈련을 안 받으면 큰일이 난다. 실천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훈련받으면 실천에서 승리할 수 있다. 훈련받는 것을 짜증스레 생각하지 마라.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훈련을 받아서 깨어나야겠다. 모든 전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민족 세계 살리는 일에 동역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말씀을 마치겠다. 우리는 믿음의 후대가 우리 대대에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의 가문과 후손 중에서 믿음의 사람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한다. 우리 참사랑교회의 다음 세대에도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그런데 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런 기적이 없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붙잡는 믿음이다. 이것이 더 위대한 믿음이다. 믿었으니 축복을 받으면 좋겠지만, 축복은 고사하고 핍박이 풀려왔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핍박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한다.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 여사(1882~1983)는 나치 수용소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다가 살아남은 전도자였다. 이분이 소련에 전도하러 가는데, 성경책들을 트렁크에 넣어서 갔다. 그런데 입국심사를 하는데, 모든 짐을 다 열어보고 검사해서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차례가 됐다. 마지막으로 '주님, 지켜주세요' 기도하는데, 자기가 볼 때 트렁크에서 빛이 확 나더라는 것이다. 검사하는 사람이 보더니, '할머니, 짐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더니, 그 짐을 열어보지도 않고 들고 택시까지 실어다 주더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눈을 덮으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나를 돕게 하셨다고 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많은 증거가 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 후대가 이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만 되겠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그 믿음 없이는 내 믿음도 못 지킨다. 우리 찬양대는 찬양하다가 너무 구원이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내 자녀들이 찬양하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게 해야 한다. 대대로 주의 전에서 섬기면서 봉사하게 해야 되겠다. 십일조가 안 되는 사람이 어찌 신자라 할 수 있겠는가. 돈을 낸다는 게 아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열의 하나만 내는 것으로, 내가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하시는 것이다. 이게 안 되니까 록펠러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은 법보다 위대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나를 시험해 보라." 말라기 3:10에, "네가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의 창고와 하나님의 창고를 잇대어 주는지 안 주는지를 시험해 보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란다. 원수의 속삭임에 속지 마라. 먼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로, 증인으로, 증거로 전달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믿음으로 살게 축복하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내 믿음의 분량만큼 반드시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 가운데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결코 나오지 않게 하시고, 더 뛰어난 믿음의 위인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